

충남리포트 제196호

# ChungNam Report

2015. 12. 03.

##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 양 중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ni.re.kr](mailto:kyj0509@cni.re.kr)

본 글은 충남 자동차부품시장의 지속적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체자동차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요 약

- 자동차부품산업은 충남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제조업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성장의 내면에는 개선해야 할 점도 존재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총매출액 중 내수 비율이 92.9%로 매우 높고, OEM 방식의 납품구조가 지배적이며, 시장 판매 비율과 자체브랜드 비율은 각각 3.8%와 17.5%에 불과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 중에 하나로 대체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을 제안함
- 2014년 1월 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월 8일 부터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사용이 가능해져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시장판매가 가능해 졌음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96.6%가 향후 대체부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47.5%가 향후 대체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이에 충남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대체자동차부품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체자동차부품산업에 신규투자유향이 있는 기업 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자동차 테마파크, 튜닝전문단지, 자동차 특성화대학, 자동차박물관 및 전시장, 자동차 정비교육 및 연구개발(R&D)단지, 자동차 부품 재활용 센터, 폐차설비 등이 집적된 중장기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이 필요함

### CONTENTS

< 요약 >

1. 대체자동차부품시장 활성화 전망
2.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
3. 대체자동차부품산업의 전망
4.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방안
5. 정책 제언



## 대체자동차부품시장 활성화 전망 ◀

# 01

- 자동차부품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충남 또한 미래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친환경 자동차(그린카) 등 세계 자동차부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부품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에서조차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은 생소하고,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14년 1월 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월 8일부터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졌음
  - 대체부품인증제는 품질을 인증한 대체부품을 시장에 공급, 기존 순정부품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를 인하하고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로 인해 향후 자동차부품시장의 변화가 예상
  - 대체부품인증제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 인하는 물론, 순정부품의 독과점 구조의 개선도 가능
  
- 향후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겠지만,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판로가 되어,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미래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는 대체자동차부품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02

## ▶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충남연구원이 연구한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조사(2014)’의 분석 데이터이며, 지역별로 랜덤 추출된 300개 업체를 표본으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 활용함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내수 비중이 92.9%로 매우 높고, 수출은 7.1%에 불과

〈표 1〉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총매출액 중 내수와 수출비중

(단위: %)

구 분	내수	수출	계
바디	91.4	8.6	100.0
동력발생장치	88.9	11.1	100.0
동력전달장치	92.0	8.0	100.0
제동장치	95.8	4.2	100.0
조향장치	93.3	6.7	100.0
의장	96.7	3.3	100.0
전장	89.9	10.1	100.0
기타	94.9	5.1	100.0
전체	92.9	7.1	100.0

자료: 김양중 외(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 이처럼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주로 내수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 등 발주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 또한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납품구조가 지배적이고, 시장 판매의 비율은 3.8%에 불과

-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발주업체와 납품업체간 종속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시 중소자동차부품기업의 시장판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표 2〉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내수판매 중 시장판매 비중

(단위: %)

구분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 납품	시장판매	계
바디	32.5	58.8	8.8	100.0
동력발생장치	14.3	83.3	2.4	100.0
동력전달장치	92.0	7.7	0.3	100.0
제동장치	14.4	83.3	2.2	100.0
조향장치	3.3	93.3	3.3	100.0
의장	15.4	81.8	2.8	100.0
전장	13.2	83.2	3.6	100.0
기타	15.1	80.7	4.2	100.0
전체	16.4	79.9	3.8	100.0

자료: 김양중 외(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표 3〉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자체브랜드 소유여부

(단위: %)

구분	자체브랜드 있음	자체브랜드 없음	계
바디	29.2	70.8	100.0
동력발생장치	19.2	80.9	100.0
동력전달장치	6.7	93.3	100.0
제동장치	11.1	88.9	100.0
조향장치	16.7	83.3	100.0
의장	13.2	86.8	100.0
전장	16.0	84.0	100.0
기타	20.3	79.7	100.0
전체	17.5	82.5	100.0

자료: 김양중 외(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 시장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자체브랜드의 개발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장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OEM방식의 납품구조와 이로 인한 자체 브랜드의 부재 때문임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중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17.5%에 불과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약점을 극복하고 산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은 일부 완성차업체에 독과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부품기업이 대체부품인증제를 통해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품업체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 대체자동차부품산업의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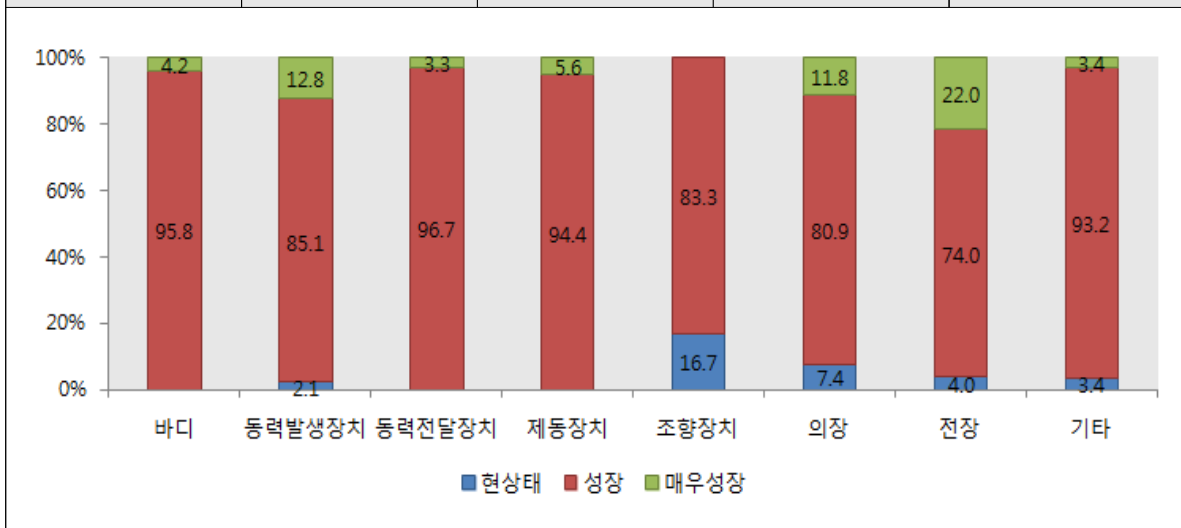
# 03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87.1%가 향후 대체부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9.5%는 매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표 4〉 대체부품시장 전망

(단위: %)

구 분	현상태	성장	매우성장	계
바디	0.0	95.8	4.2	100.0
동력발생장치	2.1	85.1	12.8	100.0
동력전달장치	0.0	96.7	3.3	100.0
제동장치	0.0	94.4	5.6	100.0
조향장치	16.7	83.3	0.0	100.0
의장	7.4	80.9	11.8	100.0
전장	4.0	74.0	22.0	100.0
기타	3.4	93.2	3.4	100.0
전체	3.4	87.1	9.5	100.0



자료: 김양중 외,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2014)

- 또한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47.5%가 향후 대체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자동차부품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및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표 5〉 대체부품생산시설 투자계획

(단위: %)

구분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바디	2.1	27.1	68.8	2.1	100.0
동력발생장치	10.6	48.9	38.3	2.1	100.0
동력전달장치	6.7	56.7	36.7	0.0	100.0
제동장치	11.1	55.6	33.3	0.0	100.0
조향장치	16.7	50.0	33.3	0.0	100.0
의장	13.2	42.7	41.2	2.9	100.0
전장	8.0	44.0	46.0	2.0	100.0
기타	3.4	47.5	47.5	1.7	100.0
전체	8.0	44.5	45.7	1.8	100.0

자료: 김양중 외(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 대체부품생산을 위한 집적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동차부품기업에서 '그렇다'라고 응답
- 충남이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내 대체자동차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

〈표 6〉 대체부품생산을 위한 집적지 조성의 필요성

(단위: %)

구분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바디	0.0	81.3	18.8	100.0
동력발생장치	12.8	76.6	10.6	100.0
동력전달장치	26.7	70.0	3.3	100.0
제동장치	16.7	72.2	11.1	100.0
조향장치	16.7	83.3	0.0	100.0
의장	10.3	77.9	11.8	100.0
전장	6.0	70.0	24.0	100.0
기타	15.3	81.4	3.4	100.0
전체	11.4	76.7	12.0	100.0

자료: 김양중 외(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임
  
- 따라서 충남이 타시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을 선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첫째, 충남 내 대체자동차부품 전문생산단지 조성
  -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대체자동차부품 전문생산단지 조성이 필요
  - 충남은 완성차업체(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동희오토)가 입주해 있고, 북부권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또한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체자동차부품 전문생산단지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음
  
- 둘째, 대체자동차부품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 충남의 자동차부품기업들은 대체자동차부품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의향도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대체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이는 충남의 기업유치실적과 산업단지 분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에 탄력을 줄 수 있음
  - 충남은 2008년 855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2015년 456개의 기업만을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7〉 충남 기업 유치 실적

(단위: 개)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업체수	855	817	683	729	596	671	640	456
(수도권 이전기업)	292	282	200	92	69	38	32	21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

● 셋째, 자동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향후 자동차 테마파크와 튜닝 전문화단지, 특성화대학, 박물관 등 자동차 관련 시설들을 포함하는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도 필요
- 자동차 복합단지에는 자동차 전시장, 자동차 정비교육 및 연구개발(R&D) 단지,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센터, 폐차설비, AS센터 등 자동차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도 함께 계획해야 함

● 넷째, 대중국 수출지원 및 물류기반 구축

- 중국은 충남 제1의 수출국이며 자동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대체자동차부품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대중국 수출을 위한 항만기반을 구축하고, 서해안 교통망을 확충하여 대중국 진출 교두보를 육성해야 함
- 대체자동차부품산업이 충남에서 활성화될 경우 대중국 수출 전지기지의 역할도 가능

●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방안 마련

-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대기업의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자체 판로를 확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그러나 대기업의 양보와 이해가 없으면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이 역할을 해야 함

- 자동차부품산업은 충남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제조업종 하나이나, 그동안 성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점도 존재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총매출액 중 내수의 비중이 매우 높고, OEM방식의 납품구조가 지배적이고, 시장 판매의 비율과 자동차부품기업 중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각각 3.8%와 17.5%에 불과
- 이와 같은 구조가 고착된다면 충남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담보할 수 없음
- 이에 충남은 자동차부품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 중에 하나로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제안함
- 2014년 1월 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월 8일부터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져, 대체자동차부품산업은 지자체의 육성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성장할 수 있음
- 특히 자동차부품기업들은 대체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하여 자기브랜드를 확보하고 시장 판매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충남은 완성차업체가 인접해 있고, 노동력이 풍부한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대체자동차부품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대체자동차부품산업에 신규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자동차 테마파크와 튜닝 전문화단지, 특성화대학, 자동차박물관 및 전시장, 자동차 정비교육 및 연구개발(R&D)단지,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센터, AS센터 및 폐차설비 등이 집적된 중장기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
- 아울러 대체자동차부품산업의 거대판로가 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을 위한 항만기반을 구축하고, 서해안 교통망을 확충하여 대중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함
- 다만 대체부품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충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양보와 이해가 없으면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음
- 따라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김 양 중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63, kyj0509@cni.re.kr

## ◆ 참고 자료 ◆

강현수·박경(2011), '충남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부품산업 계층 분석 및 협력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김광민(2013), '충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충북본부.

김양중(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박정환(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덕배·김광민(2013), '원주·충주간 자동차부품산업 공동발전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충북본부.

충남 TP 자동차센터(2012), '충남 산업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분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6), '대전·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자동차공업협회(2011), '2012년 자동차산업 전망'.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내부자료.

##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신희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필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커,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